

보도 일시	2022. 5. 9.(월) 09:00	배포 일시	2022. 5. 9.(월)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책임자	과장 김미라 (044-203-2731)
		담당자	사무관 김선기 (044-203-2732)

공연예술단체 1,800여 개 대상 공연장 대관료 지원 - 5. 9.~23. 1차 공모 온라인 접수, 단체별 연간 최대 3천만 원까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 이하 문예위)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해진 민간 공연예술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55억 원을 투입('22년 1차 추경 40억 원 포함)해 1,800여 개 공연예술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연장 대관료를 지원한다. 2022년 5월 9일(월)부터 23일(월)까지 1차 공모를 진행하며, 신청은 국가문화예술 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한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민간 공연예술단체나 개인이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도록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일부를 연간 20억 원 내외로 지원해왔다.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는 '20년 62억 8천만 원, '21년 55억 원, '22년 55억 원으로 그 규모를 대폭 늘려 민간 공연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는 8개 광역문화재단이 새롭게 참여해 한국 소극장협회와 함께 접수와 심사, 교부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등록 공연장에서 대관을 통해 진행되는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의 공연이다. 선정된 단체는 연간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순수 대관료와 부대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총대관료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조건, 절차,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7월과 11월에도 제2차, 제3차 공모를 추가로 이어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예술공연이 번번이 취소되거나 연기 되어 공연예술업계가 입은 경제적 타격이 크다.”라며, “이번 대관료 지원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창작을 이어가는 공연예술단체(개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이를 계기로 침체되어 있는 공연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개요 및 성과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의 일부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 또는 개인의 안정적 작품 창·제작 여건 마련
- (지원내용) 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된 국내 예술단체(예술인)의 기초 공연예술 분야(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대관 공연의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90%(연간 최대 3천만원)
- (지원대상) 기초공연예술 분야 민간 예술단체 및 예술인
- (주최/주관) 문체부·문예위 / (주)한국소극장협회·8개 광역문화재단*

*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전, 세종, 전북, 충북

□ **연도별 지원 내역**

구분	예산	지원 단체수	지원 공연수
2020년	62억 8천만 원	1,224개	1,264개
2021년	55억 원	1,754개	2,078개
2022년	55억 원	1,800개(목표치)	2,000개(목표치)

□ **최근 2년간(2020~2021) 분야별 지원 내역**

구분	지원신청건수	지원선정건수	평균 지원액
연극·뮤지컬	1,055	772	8,152,686
음악	2,296	1,988	2,063,465
무용	168	119	2,117,498
전통예술	116	92	1,224,016
다원예술	14	7	2,249,700
합계	3,649	2,978	3,618,664

* 지원 신청건수 및 지원 선정건수는 신청 주체(예술단체 또는 개인) 기준